

저자 인터뷰

‘마음을 닦은 유전자’ 낸 안인옥 씨

생명현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 이 유전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진화해 온 것일까?



최근 <마음을 닦은 유전자>를 펴낸 안인옥(51·KT&G 원로연구소 책임연구원·사진) 박사는 ‘유전자는 마음을 닦아가며 진화하고 있다’는 가설로 책을 시작하고 있다. ‘아직 유전자와 마음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전제한 안 박사는 ‘물질적인 현상과 마음의 작용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직 유전자와 마음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어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전제한 안 박사는 ‘물질적인 현상과 마음의 작용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연구원이기도한 그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된 것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자신이 마음과 유전자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유전자 진화 마음에 달려 있다

지난 2001년 6월, 한마음과학원에서 ‘유전자와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했던 안 박사는 이러한 주제를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책으로 내보내려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후 진화에 관한 공부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틈틈이 대안스님의 법문을 읽고 또 읽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채 상호 관계를 규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들과 함께 책 내용을 토론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나갔다.

“진화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라는 안 박사는 “우주가 생성된 후 물질과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마음의 진화’가 이루어질 단계”라고 말한다. 이미 ‘마음의 진화’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화의 완성인 ‘성불(成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로 인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 육신을 버릴 때 비로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따라 깨닫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이 누구든 그 마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몫으로 주어진 마음의 진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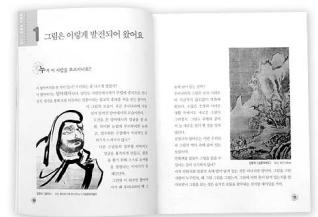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안 박사는 “공부가 더 무의미하면 문명의 진화를 마음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글을 써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신나는 역사체험 열려라 박물관

금동이책 지음
중앙 M&B / 전 3권 각권 8천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 보살반가사유상(맨 왼쪽)과 감산사석조 아미타불입상(국보 82호, 가운데), 승림 사주출전탑사리기(보물 325호).

알고 나면 박물관이 보여요

자녀와 함께 박물관에 가 본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끝없이 쏟아지는 아이들의 질문에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해 곤란했던 적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유물 옆에 놓여 있는 안내서는 자세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른이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일색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인 박물관을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신나는 역사체험 열려라 박물관>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산 해설사’ 역할을 자처한 이 책은 우리나라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배경지식 등을 설명해 줌으로써 문화재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박물관을 소개하는 책들은 많았지만 그 안에 소장된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설명하는 책은 드물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박물관 소장 유물 배경 지식까지 입체적으로 해설

예를 들어 ‘우리 옛 도자기가 탄생되기까지’에서는 다양한 도자기 사진과 함께 도자기를 제작하게 된 계기와 각 부위의 명칭, 이름 짓는 법 등을 비롯해 고려청자의 제작과정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도공의 하루를 보여주는 ‘이야기 한토막’과 중국 도자기 무역의 주역인 해상왕 장보고 인터뷰와 우리나라 도자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어린이 역사신문’, 다양한 문양을 이용해 도자기를 그려보는 ‘체험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뒷부분에는 중요 유물들의 사진과 설명을 담은 ‘속제도우미’도 덧붙였다.

이번에 선보인 ‘국립중앙박물관관’은 유물들을 <도자기>와 <불교문화>, <그림>의 세 큰으로 나누어 살핀다. 그 중에

서도 2권 <불교문화>는 불교의 전래부터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불교의 발전사를 따라 우리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꾸며졌다.

1권 ‘살포시 미소 짓는 반가사유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래되었는지, 불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그림 그리고 사진을 통해 설명한다. 2권 ‘불교를 허락하소서’에서는 불교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불상의 제작과정을, 3권 ‘통일신라, 불국도를 건설하라’는 불교가 꽃피운 화려한 불교미술을 보여준다. 4권 ‘승불 정책과 역불 정책’은 고려시대의 승불 정책과 고려불화, 금속 활자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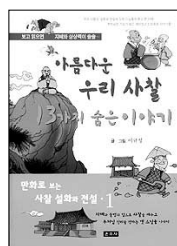
이 책을 지은 ‘금동이책’은 기획자와 작가, 그림작가, 디자이너들이 모여 어린이를 위한 책을 기획·제작하는 곳으로 앞으로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내 주요 박물관에 대한 책을 펴낼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snoooy@buddhapia.com

만화로 보는 우리절 설화와 전설

아름다운 우리 사할 13가지 숨은 이야기

이규성 글·그림
윤주사 / 9천원



우리나라 전통 사할 어디에도 창건과 중창에 얽힌 설화나 전설이 전해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한 수단인 설화는 불교가 어떻게 이 땅에 전파되고 민중의 삶 속에 뿌리내

렸는지를 생동감 있게 보여 주는 자료다. <아름다운 우리 사할 13가지 숨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절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볼 수 있다. 이규성 글·그림 윤주사 / 9천원

은 이야기)로 펴냈다. 지은이는 “우리 선조들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할을 창건하고 불사를 일으키는 과정과 어떻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했는가를 보여주어야 했다”고 말한다.

여부가 건져 올린 돌나한상을 모신 낙산사 보살상과 인호스님이 목숨을 구해준 소 덕분에 중창하게 된 계룡산 감사, 검단선사가 교화시킨 도둑들이 인도에서 온 불상을 모시기 위해 지은 고창 선운사를 비롯해 지리산 화엄사, 소요산 자재암, 영주 부석사, 무등산 증심사, 논산 관촉사 등 전국 13개 사찰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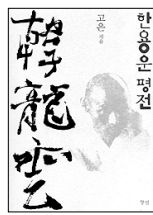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새로운 책

한용운 평전

고은 지음, 향연 1만3천원
“그는 시인만으로 말해져야 하며 그것만으로 말해질 수 없어야 한다. 그는 승려만으로 말해져야 할 때 승려를 넘어서버렸다. 그를 독립운동가로 강조하려고 하면 그런 입장을 어는 몇몇 독선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는 근대 한국 최대의 전인적 규모의 사상가, 예술가, 실천가였기 때문이다.”

만해 한용운(1879-1944) 스님의 서거 60주년(6월 29일)을 앞두고 1975년 출간됐던 평전이 재발간 됐다. 고은 시인이 지은 이 책은 어린시절부터 독립운동가로서의 활동, 불교 연구와 문화활동 등 만해 스님의 삶과 정신세계, 역사적 의의 등을 박제된 ‘영웅’으로서가 아닌 ‘인간 만해’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빛비늘

이을 지음, 창어 1만원
=시인이자 소설가인 이을 씨가 명상과 사색으로 인도하는 365편의 구도시를 묶어 펴냈다. 각 시마다 참선과 단전호흡, 명상 용어를 간략하게 풀어 놓아 시의 이해를 돕는다.



조선의 최후

김윤희·이욱·홍준화 지음, 다른세상 1만2천원
=이 책은 ‘대한제국의 멸망’이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집권층의 부패라는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 바도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권위적 전체주의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던 고종에 대한 비판과 불합리한 경제정책의 허실 등의 고찰해 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가장 행복한 공부 | 청화 스님 | 시공사 |
| 2 | 운명을 뛰어넘는 길 | 김지수 불 | 불광 |
| 3 | 발상에 도가 있다 | 정세채 모 | 세 |
| 4 | 아! 붓다 | 탁 낮 한 | 반디미디어 |
| 5 | 영기전도 | 우룡 스님 | 효 립 |
| 6 | 수행의 단계 | 달라이 라마 | 들 념 |
| 7 | 아름다운 우리 사할 13가지 숨은 이야기 | 이규성 | 윤주사 |
| 8 | 그 산에 스님이 있었네 | 홍립 스님 | 바 보 세 |
| 9 | 들숨날숨에 마음행기는 공부 | 대립 스님 | 초기불전연구원 |
| 10 | 불교수행법 강의 | 남 회 근 | 세월책는세월 |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예시이문 전화: (02)737-0695

행자님을 모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현실속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실 분을 찾습니다.

새시대에 맞게 능력과 개인별 소양에 맞는 역할을 나누게 되며, 소정의 기간이 지난후 원력에 따라 상급반 진학 및 포교당 소임을 맡게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스님되기를 탐하고 계신분도 함께 이끌면서 수행할 것이며, 이미 스님이 되신분은 인연된 사찰의 소임 또는 학문적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되시길 바랍니다.

- 스님이 되기를 바라는 행자
 - 고택이상, 50세 미만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 기존의 스님이 되신분
 - 승적증명서(종단구별없음)

문의: 041)732-5629, 041)734-5377
E-mail: budda9446@hanmail.net
H.P: 011-9402-5629



종각 대법종 불사 동참 바랍니다

귀의상보호고, 인연있는 종각, 범종 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하시고 무량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옛 신라에는 국운이 기울자 황룡사 9층 석탑을 세워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뤘고, 고려인은 호국의 일념으로 8만대장경을 조성하여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운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은성사 범종 스님은 옛 신라인과 고려인의 전술한 마음과 정성을 이어받아 3만 3천 대 범종 탁발 불사를 시작하여 세계적으로는 불안한 핵 테러의 공포를 소멸하여 인류가 평안하고 하고 국내로는 정치적 불신과,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중생의 고뇌와 아픔을 소멸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 범종 불사가 원만히 예정대로 성료되는 2005년은 우리민족이 새롭게 도약하는 해입니다. 2005년 을유년은 해방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일제치하 36년의 고통과 설움에서 해방을 맞이 했듯이 삼천리 강산에 삼천만 중생이 새로운 희망을 맞도록 불제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 뜻깊은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정성껏 동참바랍니다.

- ◆ 농 협 52013-56-014321
- ◆ 광주은행 148-121-656943 (예금주: 범종스님 한길성)
- ※ 입금하여 주시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시를 은성사로 알려주시면 대 범종 및 동관에 이름을 각인합니다. 참여한 불자님들의 공덕이 만세에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은성사 주지 범론 합창
은성사 종각 대법종 불사 후원회 회장 조영희(신도회장) 합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두리 옥동 139 은성사

전화: 063)561-1826 / 561-1783. 011-634-4498. 019-501-1826

대한불교조계종 특수학교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생모집요강

본 학교는 어산작법(매·무용)과 불전외적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 의식을 어법하게 접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으로써 조계종 교육원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 설립하여 이에 불교의식 전분야 연구할 신인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및 교육기간
 - 1) 본 과: 불전외적 전문과정 - 2년
 - 2) 불전의식과: 6개월
 - 3) 작 법 과: 6개월 4) 무용교양과정: 3개월

- 교육내용
 - 1) 본과 및 불전의식과
 - 일용의식 (도량식, 중송, 예경,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 상용의식 (불공, 천도제, 시식)
 - 제반의식 (경안, 이운, 방생, 대비사덕담, 관복, 풍악, 소심경, 포살, 수계)
 - ※ 범패작법도 병행해서 교육함
 - 2) 작 법 과: 바라부, 나비무 3) 교양과정: 불교의식의 탐구와 이해

- 응시자격
 - 1) 본과: 조계종승려로서 구족계를 수계한 자
 - 2) 본과 외 다른과는 승려 및 재가불자도 가능함

입학원서(소정양식), 승적증명서, 조계종기독교교육기관 졸업증명서 각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2004년 2월 28일(토) 오후 3시

성북구 안양동 5가 8번지 대원암 (6호선 안양역) 교차처 ☎ 02)921-3425

※ 본 학교의 소장 교과교정을 이수한 스님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졸업장과 3급 승가교사 응시자격이 주어짐.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작법학교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세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귀를 기피하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사랑하는 사람 이자임 교수



그리움으로 울고 말았다
그대 그리움 사랑으로 울고
내영혼 잠 못드는 밤 우두커니 홀로앉아
온 밤을 지새워 울고
못내 그리운 마음 그대 찾아 가고 싶어

원장 이영숙 함정

- 호주 초·재혼 신원 확실히 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연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345-5411
휴대폰: 011)288-2944